



대한인쇄문화협회, 일본시장개척단 파견 오사카 지역 첫 진출 · 동경도서전 방문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조정석) 국제교류위원회(위원장 박제덕)는 지난 7월 2일부터 4일까지 일본 오사카로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했다. 5개 업체가 참가한 시장개척단은 지난 7월 3일 그린플라자오사카 호텔 6층 상담회장에서 이뤄진 바이어 업체와의 1:1 상담을 통해 총 1억7000만 엔 규모의 상담실적을 올렸다. 한편, 7월 2일에는 동경 빅사이트 전시장에서 개최된 '2014도쿄국제도서전'을 방문, 우리나라 참가업체들을 격려했다.

글 | 조갑준 기자 kjcho@print.or.kr

5개 업체 1억7000만엔 규모 상담

일본시장개척단 파견은 올해가 4회째로, 대한인쇄문화협회가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인쇄수출지원센터 인쇄물 수출 진흥 사업의 하나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주)금강인쇄, 대한문화, (주)문성원색, (주)신우문화, (주)아시아코리아프린팅 등 5개 업체 대표단은 사전에 배정된 각 6개 업체와의 1:1 수출상담을 진행, 역대 최대인 1억7000만 엔 규모의 상담실적을 거뒀다.

일본은 매해 4000만 달러 이상의 인쇄물이 수출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역국으로 한류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 우리나라 인쇄물에 대한 호감도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시장 중 하나다. 특히 2013년도에는 우리나라 수출액의 37%를 차지하는 4318만2000달러치가 수출돼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대한인쇄문화협회는 2011년부터 3년 연속 동경으로 시장개척단을 파견한 바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오사카 지역으로 진출, 신규 바이어 발굴을 위한 첫발을 디뎠다. 또한 올해에는 출판인쇄업체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패키지 인쇄업체가 참가하는 등 업체의 다양성도 개선됐다. 아울러 4회에 걸친 일본 시장개척단 파견으로 중소기업의 일본에 대한 인쇄물 수주 활동 지역이 동경과 오사카를 필두로 한 일본 전역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

지속·조직적인 시장개척 활동 필요

시장개척단 사업은 혼자 힘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인쇄사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외수출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이처럼 국내 중소기업의



1. (주)금강인쇄 상담 모습
2. 대한문화 상담 모습
3. (주)문성원색 상담 모습
4. (주)신우문화 상담 모습
5. (주)아시아코리아프린팅 상담 모습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신규 시장 개척을 진흥하는 사업은 상당히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인쇄물 수출국인 일본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다른 산업에서도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시장개척단 파견이 지속될 필요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4년 동안 시장개척단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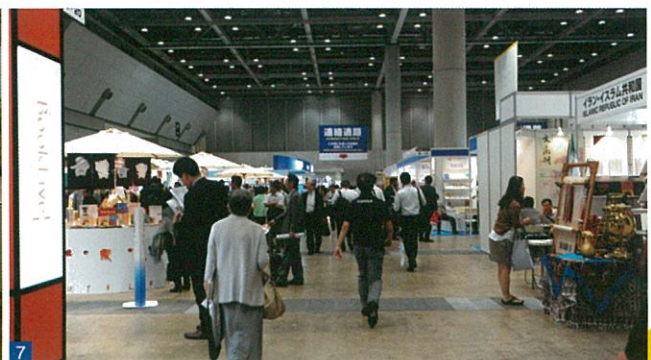
이에 따라 일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선 일본시장 현황과 기업 문화 등에 대한 중요 정보를 파악하고, 사전에 철저한 수요조사서를 거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국내 참여업체 간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양질의 정보를 공유하고, 단발성 고객이 아닌 장기 고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본 상담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이처럼 국내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본 시장개척단 파견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평가되며, 추후에도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이에 2015년에도 이번에 교두보를 마련한 오사카 지역으로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면 보다 향상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경도서전 참가업체 격려 방문

일본시장개척단 일행은 행사 전날인 7월 2일에는 일본 동경 빅사이트 전시장에서 개최된 '2014도쿄국제도서전'을 참관했다. 도쿄국제도서전은 매년 40여 개국이 참가하고 6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일본 최대의 도서전이다. 세계 제2의 출판시장인 일본에서 개최되는 만큼 출판사는 물론이고 인쇄사, 서점 및 유통 관계자들이 대거 참가한다.

서울인쇄센터(이사장 남원호)도 해외수출 확대 및 판로개척을 위한 서울시 해외전시회 파견 사업의 일환으로 정아문화사, (주)금강인쇄, 팩컴코리아 등과 함께 참가해 우리나라 인쇄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조정석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을 비롯한 일본시장개척단 일행은 전시회를 방문,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는 인쇄인들을 격려하고 많은 성과 거두기를 기원했다.☞



6. 동경도서전 인쇄센터 전시관을 방문한 시장개척단 일행 7. 2014동경도서전 전경